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계에서 오는 우울함에 대한  
자기 치유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보 람

관계에서 오는 우울함에 대한  
자기 치유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김 보 람

# 인 준 서

김보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인간은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으로 상대방을 알아가며 필요할 때 힘이 되는 상대가 되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SNS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변화했지만, 이것은 실체가 아닌 온라인상의 가상현실이다. 현실의 관계는 타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 타산적이며, 타인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한 표면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하지 못했던 표면적인 관계를 깨닫게 되는 순간 허무함과 우울함으로 나타난다. 본인은 이러한 우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있는 공간’인 자발적인 고독을 가진다. 시각과 청각을 차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혼자 있는 공간’은 타인을 의식하며 보여 지는 내가 아닌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은 우울을 극복하고 치유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본 논문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함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혼자 있는 공간’이라는 형상적인 표현방법을 통해 진행된 본인의 작품을 분석 하였다. 본 논문은 2017년 석사학위 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본론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대인의 우울의 요인으로 본 대인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의 경험에서 우울함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2. 현대인을 투영한 ‘혼자 있는 공간’의 형상과 위로의 장치로 표현된 배계와 색채에 대한 표현 방법을 서술하였다.
3. 본인의 작품7점에 대한 개별적인 제작방법과 작품설명을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현대인의 관계 .....	3
2) 치유를 위한 자발적 고독 .....	7
2. 작품표현방법 .....	9
1) 혼자 있는 공간 .....	9
2) 위로의 장치 .....	12
3. 작품 분석 .....	15
III. 결론 .....	31

참고문헌

ABSTRACT

## 작품목차

【작품 1】	personal space-blue FRP, 25×25×40cm, 2017 .....	14
【작품 2】	personal space-green FRP, color pencil on fabric, 22×30×50cm, 2017 .....	16
【작품 3】	personal space-black FRP, color pencil on fabric, 25×50×87cm, 2017 .....	19
【작품 4】	personal space-violet FRP, color pencil on fabric, 32×40×20cm, 2017 .....	22
【작품 5】	personal space-red FRP, color pencil on fabric, 33×63×13cm, 2017 .....	24
【작품 6】	personal space-box FRP, color pencil on box, 18×10×62cm, 2017 .....	26
【작품 7】	drawing-box FRP, paper, stainless steel 15×1.5×40cm, 2017 .....	28

## I. 서 론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대량생산과 소비, 지식과 정보의 생산 활용능력이 증시되어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단기간의 발전은 가치관 혼란, 빈부격차, 인간소외, 우울, 비인간화 등의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인간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정신건강에 대해 일하고, 사랑하고, 놀 수 있는 능력이라 언급했다. 이와 같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거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해도 가족과 친구, 사회에서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힘든 것이다.

본인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현대사회의 구조에서 우울함과 비인간화에 대해 경험하였다. 매일 하루라는 시간동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종종 나라는 주체가 없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체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있지만, 혼자 떠있는 섬과 같이 내면의 채워지지 않는 우울함과 무기력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 되지 않고 더해만 갔다. 그래서 본인은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해 우울함의 원인과 극복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인은 우울함의 원인을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에서 찾았고 본인의 해소방법에 대해 생각하였다. 스스로의 우울의 원인과 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면 타인의 슬픔과 우울함을 공감하고 위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해소의 방법으로 자발적 고독을 가질 수 있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치유 받고 짧은 순간이지만 생활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본인은 관계에서 오는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인 자발적 고독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형상표현과 치유의 장치로 사용된 부드러운 촉각적 매체, 감정을 표현한 색채로 구성된 본인의 작품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형성 배경, 표현방법, 작품분석으로 연구를 하였다.

첫째, 현대사회의 대인관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본인이 논문에서 다룬 관계 그리고 관계로부터 오는 우울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였다.

둘째, 본인 작품에서 다루는 위로를 위한 자발적 고독인 ‘혼자만의 공간’을 표현하기위한 현대인의 형상표현과 치유의 도구로 사용된 촉감과 색채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작품의 의미와 제작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현대인의 관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관계는 타인과의 소통으로 상대방에 대해 학습하여 성립된다. 가족, 학교, 직장, 동아리 등의 다양한 집단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간의 일차원적인 것이 아닌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유희유 같은 것이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대량생산과 소비, 지식과 정보의 생산 활용능력이 증시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구조의 발전은 물질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관계에 물질적 가치가 부여되고 가치관의 혼란, 인간소외 우울 등이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과거 낮은 담장과 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간의 신뢰 안에서 살았다면, 오늘날 인사는커녕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만큼 관계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관계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된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은 그의 저서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에서 사회집단의 경험에서 나오는 공통된 성격을 ‘사회적 성격’이라 하며 사회적 성격은 기술적·제도적 경제발전예 따라 크게 세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중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선진 공업

사회의 도시에서 보이는 ‘타인지향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과 상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려 한다. 여기서 타인은 자기 주위의 사람이거나, 윗사람, 또는 매스미디어 속 익명의 누군가일수도 있다. 동시대의 타인의 동의와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sup>1)</sup>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타인지향형의 사회적 성격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로 사람의 가치가 물질화됨으로서 관계 맺기는 이해 타산적이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쉽게 타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매 관계에 보이지 않는 눈치싸움이 따르게 되고 정신적 긴장감으로 에너지를 쏟게 된다. 물질적인 풍족함과 안정감을 현대사회에서 선물 받았다면 우리는 관계안의 ‘정’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본인 또한 표면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지금만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어 한다. 소극적인 성격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타인이 어려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보지 못해 힘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맡는다.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태도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앞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인을 통해 듣게 된 부정적인 평가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면서 더욱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정보화의 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화의 타인의 평가와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표면적이던 인간관계의 단점을 심화시키게 되었다. 정보화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와 메일들을 전달하여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고,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사회적 거리와 지리적 거리를 좁혀 전 세계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 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과거

---

1)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동서문화사, 2013, pp.62-82

오프라인의 관계 맺기는 타인과 직접 만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소셜미디어의 관계 맺기는 가상의 공간에서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타인을 만나기 때문에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며 필요시에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릭 한번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만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듯이 가볍고 피상적인 관계가 현대인들에게 편한 방식일수 있으나 공허함과 외로움은 채워지기 힘들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높아질수록 온라인 평판 관리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됐음을 볼 수 있다. 온라인 평판은 취업, 사회생활과 같은 오프라인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의 발달은 인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온라인 평판은 개인이 평소에 신경써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어떠한 배경의 사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평판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 수, 사람들로부터의 댓글 등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폭과 상호작용의 정도가 온라인상의 평판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sup>2)</sup>

소셜미디어의 관계 맺기와 평판관리는 오프라인의 인간관계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는 본인에게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타인과 관계 맺기를 위해 하게 된 SNS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보와 사진과 글을 노출하는 것과 내가 쓴 글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대해 의식하게 되면서 온라인의 익명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의식해야한다는 것이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한 요소로 느껴진다.

사회의 발전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은 사라지고 편리성이 증대되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갔다. 산업화의 관계부족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정보화 시대에 더욱 심화되어 피상적이고 가상의 관계가 지속되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이는 대인관계

---

2)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주)나남, 2011, pp.240-241

가 현대인의 우울의 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치유를 위한 자발적 고독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고독을 이기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매체들에 의지하여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우울함과 스트레스는 타인과 매체에 의해 공감과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뿐 또다시 우울함을 느끼게 된다. 자신이 왜 우울해지고 힘들어하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집중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위한 시간 ‘고독’이 필요한 것이다.

고독은 흔히 결핍, 소외 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일까. 고독(solitude)과 외로움(loneliness)을 구분해야 한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차단된 고통이다. 고독을 피한다면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남이 보기에 내가 어떤가’에 집착하게 만드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혼 없는 좀비가 되지 않는 비결은 ‘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다.<sup>3)</sup>

소설가 모리 히로시(MORI Hiroshi)는 “인간에게 외로움이나 고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고독도 한번쯤 경험해 보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다. 외로움이나 고독은 스스로 기꺼이 추구해도 좋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sup>4)</sup>고 고독에 대해 언급하였다.

본인은 기꺼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스로가 원하는 자발적인 고독은 치유를 위한 고독이라 생각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고 있는

3) 김규향, 『우리는 고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 알마, 2017, p.6

4) 모리 히로시, 『고독이 필요한 시간』 카시오페아, 2015, p.91

가에 대해서만 보고 있었다면 눈과 귀를 막고 외부의 어떠한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만든 혼자만의 공간에서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드러내고 안정이 되었을 때 생각한다. 왜 화가 나있으며 우울했는지, 그럴만한 것이었는지 사소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다보면 사소한 것은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 큰일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로를 하게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다보면 놓치고 있었던 내가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생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 2. 작품표현 방법

### 1) 혼자 있는 공간

본인의 작품 personal space 시리즈는 사회집단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이 위로의 공간으로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는 비슷한 옷을 입고 동일한 시공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쉽게 변하는 표면적인 관계와 온라인상의 허구적인 관계로 퇴색되어 육체적인 피로보다 심리적인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작품의 현대인은 눈코입이 없거나 얼굴을 숨기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허구의 가상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멋진 모습을 올려야 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는 오늘날의 관계에서는 얼굴과 표정으로 판단한다. 얼굴은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얼굴에 있는 눈, 코, 입의 모양과 특징으로 사람을 기억하고 얼굴의 표정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서 보여 지는 얼굴이 없거나 숨기는 행동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현대인을 의미한다.

얼굴을 숨기기 위해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공간’을 찾아 위로받고 있는 현대인은 작품속의 웅크린 자세로 베개를 끌어안거나 박스를 써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몸을 눕힐 때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내면의 자세인 마음가짐도 외적인 자세와의 연관에서만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듯하다. 우리는 이미 누워있을 때부터 서 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그냥 앉아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안락한 소파에 몸을 맡기기만 해도

자세가 요구하는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주변자극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마음가짐의 특성으로 강조한 세계와의 긴장상태가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이러한 인간의 자세는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웅크린 자세에 대해 영국의 신체언어 전문가 로버트 피프스(Robert Phips)는 실험을 통해 인간의 수면자세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그중 태아형 자세를 취한 실험 참가자들을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안식을 찾는 이라 한다.<sup>6)</sup> 태아의 형태를 띠는 웅크린 자세는 태아의 오랜 시간동안 좁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취했던 것을 성인이 되어 몸의 기억으로 스스로를 보호받으려 하는 심리로 자세를 취한다.

작품의 베개와 박스는 외부와의 감각을 차단하여 위로의 공간을 만든다. 베개가 의미하는 침실은 우리는 지친일상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와 폭신한 침대에 눕는 것만으로 위로가 된다.

침대에 누우면 우리는 물적으로 다가오는 세계와 더 이상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저 따뜻하고 편안한 주위환경과 하나 됨을 느낀다. 신체적으로도 어떤 단단한 물체에 저항할 이유가 없어지듯이 의식 역시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우리는 주변세계와 다시 하나가 된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감싸는 끝없이 편안한 느낌은 여기에서 나온다. 완벽하게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침대의 과제이다. 침대는 이런 보호기능을 가진 분리된 공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집에서 편안함의 정점을 이루는 곳이다.<sup>7)</sup>

본인이 표현한 작품에서 현대인은 베개로 만들어진 치유의 공간에서 쉬거나 잠을 잘 때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자세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준다. 베개로 외부의 소리와 시각을 차단하여 거리감을 줌으로서 스스

5) 오토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23

6) HANNAH FURNESS, 『What does your sleeping position say about you?』 the telegraph, 2012. 08. 18,

7) 오토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26

로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공간을 만든다. 여기서의 공간은 베개안의 자신만의 물리적 공간과 감정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다른 혼자 있는 공간을 표현한 작품 【personal space-box】는 박스를 통해 볼 수 있다. 박스는 무엇인가를 담아 보관하거나 보낼 때 사용된다. 타자에 의해 포장되어 보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은 도피의 심리 또한 반영된 것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침실을 연상시키는 베개와 달리 박스는 직각의 형태로 폐쇄적이고 이동되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같은 사람이라도 심리상태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공간에 대한 욕구가 달라진다. 깊은 슬픔에 빠졌을 때는 동굴처럼 좁은 곳으로 들어가고 즐겁게 들뜬상태에서는 넓게 펼쳐진 공간이 필요하다.<sup>8)</sup>

사람의 심리의 따라 필요한 공간의 욕구가 달라짐과 같이 작품에서 표현된 본인이 경험한 상황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

---

8) 오토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p.298

## 2) 위로의 장치

베개와 박스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고독을 위한 ‘혼자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면, 천과 색채, 드로잉으로 공간에서의 위로의 장치에 대해 시각화 하였다.

바쁜 하루의 시간동안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침실을 연상시키는 베개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베개의 형태를 만드는 천과 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촉각적 위로의 장치로도 사용하였다. 촉각은 인간에게 형성되는 첫 번째 감각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약하게나마 존재하는 마지막 감각이기도하다. 연구자들은 ‘촉각은 정서적 접촉에도 이용 된다’고 말한다. 촉각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뇌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피부 대 피부접촉을 통해 감정적 반응과 호르몬 반응 및 다른 반응을 자극한다는 것이다.<sup>9)</sup> 폭신한 베개를 꼭 끌어안는 행동의 피부접촉을 통해 본인에게 닿는 촉감은 정서적 접촉의 효과로 긴장감을 완화해준다. 작품에서 베개는 수면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안정감을 주는 대체물이다. 본인의 촉각적 정서적 접촉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져봄으로써 개인이 다른 공간에서 경험하였던 안정감을 주는 촉각적 경험을 상상하게 한다.

촉감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연상시켰다면 색채와 자유롭게 칠해진 선들은 해방감의 장치로 사용되었다. 색은 정서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색과 감정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하고 주장하며 입증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색에 대한 느낌이나 색의 영향은 개인차가 큰 심리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어 파악하고 설명하기 어렵고 올바르게 표현하기도 어렵다. 우리가 색을 보는 순간, 뇌 안에서는 육체적 정서적 망이 작동한다. 통합감각현상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도 색과 정서가 밀접하게 연결되

---

9) 베르너 바르텐스, 『접촉: 스킨십의 심리와 의학적 효능』, 황소자리, 2016, pp.18-19

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폭넓은 상징의 세계도 특정한 색과 정서사이의 연결을 알려준다.<sup>10)</sup>

색이 정서에 사이에 연결이 있음을 보여주는 색채 심리학에서 색채 표현이란 무의식의 심리적 에너지를 표출하는 것이라 말한다. 좋아하는 색채를 스스로 선택하여 표현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다양한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즉 무의식 속의 자신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쌓인 스트레스나 분노의 응어리는 색채라는 감정언어로 표출되고, 시원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텅 빈 상태에서 자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리된 색채표현이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색채심리를 통한 치유의 과정이다.”<sup>11)</sup>

색채표현이 치유의 과정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것 과같이 색을 고른다는 것은 일종의 반응이다. 첫째, 색이 유발한 느낌과 색이 발산한 에너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고 둘째, 신체적, 심리적 현상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다.<sup>12)</sup>

작품의 제목으로 지칭된 색은 본인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감정을 의미한다. 일상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각각의 상황을 떠올릴 때 선택하게 된 색이다. 예를 들면 힘들고 슬플 때 파란색, 나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을 때 검정색등과 같다. 본인이 왜 선택했는지 알지 못했던 색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들을 표출하고 결여된 것을 채우기 위한 치유의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택된 색을 칠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계열의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한 크기의 원형 곡선으로 뺄뺄

---

10) 엘케 뮐러 메에스, 『감각을 자극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어주는 : 컬러파워』, 베텔스만, 2003, p.70

11)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25

12) 엘케 뮐러 메에스, 『감각을 자극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어주는 : 컬러파워』, 베텔스만, 2003, p.72

하거나 러프하게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색채의 선택과 표현하는 선의 사용은 쌓여왔던 감정들을 작품 과정에서 표출하는 치유의 장치로서 사용되어진다.

### 3. 작품분석



【작품 1】 personal space-blue

【작품 1】 personal space-blue

연도 : 2017

크기 : 25×25×40cm

재료 : FRP

제작방법

좌상의 베개를 끌어안고 있는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들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셔로 컬러링을 한다. 베개 부분을 파랑색계열의 색연필로 자유드로잉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작품설명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다. 본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커다란 베개를 꼭 끌어안아 얼굴을 묻고 울고 있다. 일과 사람들은 곳곳이 버터내고 있는 나를 구석으로 숨고 움츠러들게 하였다. 몸집과 비슷한 베개는 위로해줄 타인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다른 작품과 달리 딱딱하게 만들어진 베개는 다른 때와 달리 쉽게 풀리지 않는 마음과 같다. 딱딱한 베개위에 선명하고 촘촘하게 색칠된 푸른색의 선들은 얼기설기 꼬여있는 복잡한 내면의 상황이다.

파란색은 한색계열중 대표적인 색으로 주로 조용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집중력을 높여주는 색이다.<sup>13)</sup>

---

13)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50.



【작품 2】 personal space-green

## 【작품 2】 personal space-green

연도 : 2017

크기 : 22×30×50cm

재료 : FRP, color pencil on fabric

### 제작방법

의자에 앉아 웅크린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틀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원단으로 학생의 몸에 맞게 재단하여 베개의 형태를 만들고 초록색계열의 색연필들로 자유드로잉 후, 패브릭 보호제로 2차례 코팅을 한다. 학교의자와 같은 형태로 높은 의자를 만들어 설치한다.

### 작품설명

비슷한 형태의 옷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는 공간은 여럿이 있음에도 혼자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운 철과 나무로 만들어져 장시간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으로 아프게 한다. 시각적으로 위태로운 바닥과 멀리 떨어진 높은 의자는 땅에 닿지 않는 발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여 불안하고 외롭다. ‘혼자 있는 공간’안에서 스스로에게 의지하여 내려갈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초록색은 한색(cool)인 파란색과 난색(warm)인 노란색이 혼합된 색이다. 그러므로 내면으로 향하는 파란색의 심리(구심적 심리, 내향성)와 외부로 어필하는 노란색의 심리(외향성)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게서 초록색으로

마음의 균형을 취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sup>14)</sup>

---

14)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47.



【작품 3】 personal space-black

### 【작품 3】 personal space-black

연도 : 2017

크기 : 25×50×87cm

재료 : FRP, color pencil on fabric

#### 제작방법

어딘가로 향하는 움직임의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들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무지원단으로 학생의 몸에 맞게 재단하여 베개의 형태를 만들고 검정색계열의 색연필로 자유드로잉 후, 패브릭 보호제로 2차레 코팅을 한다. 폭이 좁은 긴 좌대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 작품설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혼자 있는 공간’을 위해 베개를 끌고 간다. 베개의 끝부분을 꼭 부여잡고 끌고 가는 형태는 자발적 고독으로 가는 것과 치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두 가지를 상상하게 한다. 높고 폭이 좁은 길은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흰색과 사람과 검정색으로 색칠된 베개로만 색칠되어있다. 다른 작품에서 보여 지는 유사한 색상으로 영커지듯 칠해진 것과 달리 검정으로만 칠해진 베개는 우울함의 원인이 한가지로 내면이 채워져 있음을 강조한다.

무채색이란 색이 없다는 뜻으로 색이 없다는 것은 감정역시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감정을 감추었거나 무척 혼재된 감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모든 색을 섞으면 무채색인 검정색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15)

---

15)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57.



【작품 4】 personal space-violet

【작품 4】 personal space-violet

연도 : 2017

크기 : 32×40×20cm

재료 : FRP, color pencil on fabric

#### 제작방법

웅크리고 누운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들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무지원단으로 조각의 몸보다 큰 크기로 재단하여 베개의 형태를 만들고 보라색계열의 색연필들로 자유드로잉 후, 패브릭 보호제로 2차례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비가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 편안한 공간인 집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창밖너머 보이는 번쩍거림과 안팎으로 나오는 큰소리는 위축되게 만든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긴 베개를 팔다리로 꼭 끌어안는다. 꼬리를 말고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몸을 동그랗게 웅크린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배색이 섞인 보라색은 활기와 억제의 심리를 함께 가짐으로써 갈등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여 재생하려는 인간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색이기도 하다.<sup>16)</sup>

---

16)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54.



【작품 5】 personal space-red

【작품 5】 personal space-red

연도 : 2017

크기 : 33×63×13cm

재료 : FRP, color pencil on fabric

#### 제작방법

베개의 과묵한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들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무지원단으로 조각의 몸보다 큰 크기로 재단하여 베개의 형태를 만들고 내부에 작품과 연결할 수 있도록 나무판을 넣어 작품과 조립하여 솜으로 채운다. 빨간색계열의 색연필들로 자유드로잉 후, 패브릭 보호제로 2차레 코팅을 한다.

#### 작품설명

바쁜 하루를 보내고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 편안한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침대에 털석 눕는다. 폭신하고 따뜻한 이불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긴장된 몸과 마음을 위로해준다. 힘이 들 때 매운 음식과 빨간색을 찾는 것은 빠져나간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폭신한 베개에 과묵한 사람은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의학적 실험을 통해 빨간색이 인간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과 관계가 있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거나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결과 보고도 나와 있다. 따라서 빨간색은 내면을 움직이는 원초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나타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

17)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p39.



【작품 6】 personal space-box

【작품 6】 personal space-box

연도 : 2017

크기 : 18×10×62cm

재료 : FRP, color pencil on box

제작방법

경직되어 서있는 현대인의 형상을 소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들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골판지로 몸을 덮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박스를 만든다.

작품설명

상자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온몸을 다 가리고 숨고 싶지만 박스는 나를 가리지 못한다. 두 주먹을 짝 쥐고 경직된 자세로 서있다. 사람들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치 얼굴만 숨기면 다 숨었다고 느끼는 아이들처럼 완벽하게 숨지 못했지만 얼굴을 가리게 됨으로써 익명의 내가 된다. 박스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과 같다.



【작품 7】 drawing-box

【작품 7】 drawing-box

연도 : 2017

크기 : 24×1.5×34cm

재료 : FRP, paper, stainless steel

#### 제작방법

박스를 뒤집어쓰고 서있는 현대인의 형상을 부조한다. 석고 캐스팅으로 곁틀을 만든다. 합성수지로 원형을 만들어 수정한 후 흰색 서페이서로 컬러링을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판에 우레탄 도색하여 부조를 붙인 후, 크레프트지로 부조의 크기에 맞게 박스형태를 만들고 무광우레탄코팅제로 코팅한다.

#### 작품설명

작품에서 보여 지는 상자는 어디인가로 보내질 때 사용되는 택배 박스와 같다. ‘어딘가로 보내졌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은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게 스스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완벽히 숨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불안한 마음은 완전히 포장되지 못한 박스 안에 머리가 보인다. 평면으로 만들 부조의 작업은 마치 만화의 한 장면과 같이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본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울함에 대해 고찰하였고, 또한 이러한 우울함을 자발적 고독인 ‘혼자 있는 공간’을 가짐으로서 해소된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표면적인 관계에서 우울함을 느끼는 현대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된 ‘혼자 있는 공간’을 찾는 형상을 표현 하였으며, 치유의 장치로 사용된 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관객들이 치유의 장치로 사용된 촉각적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소재의 재료로 만든 베개로 나타내었다. 얼굴이 없거나 숨기는 전체적인 작품에서는 본인이 사회생활과 관계에서 본인이 우울함과 피로함을 느끼는 것을 깨닫고 본인을 작품에서 표현된 현대인의 모습에 대입시켰으며, 이러한 형상은 베개와 상자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의 환경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칠해진 색(color)의 선택과 낙서하듯 색칠하는 제작과정에서 내면에서 표출하고자하는 스트레스를 치유 받음을 경험하였다.

본 논문을 마치며 자신의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본인의 작품형성배경과 표현방법 그리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본인을 대면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추후 본인의 치유과정으로서 회복된 현대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은미, 이동후, 임영호, 정일권,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주)나남, 2011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동녘, 2012
- 올리비아 랭, 『외로운도시 : 뉴욕의 예술가들에게서 찾은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어크로스, 2017
- 데이비드 리스먼, 『고독한 군중』, 동서문화사, 2013
- 김규향, 『우리는 고독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 알마, 2017
- 모리히로시, 『고독이 필요한 시간』, 카시오페아, 2015
- 오토프리드리히 볼노,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 엘케 뮐러 메에스, 『감각을 자극하고 건강한 삶을 이끌어주는 : 컬러파워』, 베텔스만, 2003
- 백낙선, 『마음으로 읽는 색채심리』, 미진사, 2010
- 베르너 바르텐스, 『접촉』, 황소자리, 2016

### 《홈페이지 및 기타》

- NAVER 지식백과
- 위키백과

## ABSTRACT

A Study of figurative expression as a self healing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duced depression.

- On the Foundation of my work -

Kim, Bo Ram

Department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Public Art Major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and Arts

Sungshin University

Humans encoun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life. Being in a relationship carries an implication of knowing the opposing party through communication and becoming an ally when needed. Today, interpersonal relations in a society with cutting edge adv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made people to meet easily and conveniently through SNS, but this merely a virtual reality, far from reality. Relationship in reality is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one's fulfillable interest by way of engaging the opposing party, mostly superficial consideration such as other's gaze and reputation is considered. Vanity and depression manifests under the realization of the seemingly unrecognizable superfici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To free myself from

the depression, I pursue 'the alone space,' a voluntary solitude. 'The alone space' made by visual and auditory isolation, allows the facing of 'real' myself, not the one with the influence of 'being seen.' Through these methods, I have gained the power to engage social life by surmounting and healing depression. This paper refers to the depression induced b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ersonal experience and as a healing method, my art piece 'alone space,' a figurative mode of expression was analyzed.

This thesis is based on the works submitted as a request of master's degree in 2017 and i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es the research direction and purpose of my work.

Chapter 2 The body contents are as follows.

1. Describes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a factor of modern people's depression and a description on how to overcome depression from my experience.

2. Describes the figurative shape of the 'alone space' projecting modern men and the expressive method of pillow and its color, given as a device of comfort.

3. Describes individual production methods and description of works for my work.

Chapter 3 conclusion is an overall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is paper and a suggestion of the direction of future work by supplementing the deficiencies based on the research.